

## 288장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1)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세상 에서 내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 294장 - 하나님은 외아들을

- (1)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데까지  
세상사람 사랑하니 참사랑이로다
- (2)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 (3) 세상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대신  
성자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 (4) 이사랑에 감사하여 곧주께 나오라  
곤한영혼 주께맡겨 구원을 얻으라
- 후렴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랑 아닌가

7월 12(목) 기도 담당 : 최진욱 집사

2018년 7월 11일(수)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임종희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288장 ..... 다 같 이

기 도 ..... 박광식 집사

성 경 봉 독 ..... 욥기 41장 12절~14절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임종희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294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 오늘의 말씀 < 욥기 41장 12절 ~ 14절>

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능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13 누가 그것의 겹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14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 새문안교회 2018. 07. 11(수)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극히 일부인 짐승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바벨탑을 쌓았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또한 범죄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통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을 것이지만 이후 세대를 지나면서 그러한 간절함과 감사와 찬양이 점점 무디어져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역사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갔었던 것처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주님 만나날 때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1,2부 여름 사역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외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역을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유아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 신앙의 토대를 든든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양관을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고 충남 부여 일대를 섬기는 대학부 하계 수련회와 청년2부의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전도여행과 NK, 동북아, 러시아, 몽골에 이르는 두나미스 사역을 통하여 새문안의 다음세대가 온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땅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미자립교회와 해외선교지를 섬김으로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선교와 전도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각 부서 교역자를 비롯한 강사 한분한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감동이 있게 하시어 그 말씀을 받는 다음세대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되 후유증이 없게 하시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더욱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읍과 같이 연단받아 새문안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가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새성전건축과 영장리 추모관을 세워가며 새성전과 더불어 새시대를 준비하는 새문안이 민족과 세대에 보다 힘차고 풍성하게 복음의 물결을 흘러 채워가는 귀한 일을 더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